

진영 “음악·연기 50대50…반전 있는 인물 해 보고파”

부성에 녹인 까칠한 이웃으로 장기 살려

“거리두기 4단계 속 100만 돌파 의미 있어”

그룹 '비원에이포(B1A4)' 출신 배우 겸 가수 진영이 전역 후 성공적인 복귀 신고식을 치렀다.

드라마 '경찰수업'은 온몸을 다 바쳐 법인을 때려잡는 형사와 똑똑한 머리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해커 출신 범죄자 학생이 경찰대에서 교수와 제자의 신분으로 만나 공조 수사를 펼치는 이야기다. 지난 5일 16부작의 막을 내렸다.

진영은 작품을 마친 소감에 대해 최근 인터뷰에서 “군 전역 후 복귀작이다. 떨리고 긴장도 되면서 설렘도 가득했다. 6개월 활동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끝난 느낌이다. 일을 하고 싶었나 보다. 많은 분들이 잘 봤다고 얘기 해주셔서 기쁘다”고 말하며 웃었다.

극 중 진영은 20세 청년 강선호 역을 맡았다. 욕심도 취향도 꿈도 없던 그는 첫사랑 오강희(정수정)를 만난 후 경찰대학교에 지원해 꿈을 키운다. 진영은 그곳에서 열혈형사 유동만(차태현)을 만나 성장하는 모습을 그려

다.

진영은 “‘경찰수업’은 꽃꽂이 캠퍼스물이 아니라 범죄도 있는 스릴러 수사극이었다. 청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서 그게 가장 어려웠다. 초반에는 어린 모습의 선호를 연기하려고 했고 점점 차태현, 정수정을 만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생각했다. 조금 더 어두워지는 면, 진중해지는 면이 많아졌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고 캐릭터 묘사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 길 배웠다. 선호의 성격이나 캐릭터를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대로 밀고 나가는 성향이더라. 선호가 생각이 많았으면 그의 삶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확신있게 밀고 나가는 점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진영은 반대로 ‘선호’라는 인물에게 아쉬운 점도 털어놨다. 그는 “순수한 모습이 좋았지만 답답했던 모습들도

있었다”며 “강희와의 로맨스에서 먼저 말 해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오히려 제가 딱 말하는 스타일”이라며 “선호의 모습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했으면 했는데 오히려 고백도 강희가 하는 모습이 아쉬웠다”고 전했다.

진영은 군 복무 후 목소리와 얼굴선이 달라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는 달라진 외형 만큼 연기적인 모험도 꿈꾸고 있다.

“완전 변신하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역할도 많기에 두려움 보다 긴장과 설렘이 있어요.”

‘경찰수업’을 선택한 이유도 도전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경찰 대학교’라는 소재가 드라마에서 처음 쓰이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며 “그림을 그려 보며 대본을 읽는데 처음 보는 그림일 것 같더라. 후회 없이 재미있게 촬영했다”고 후기를 전했다.

2년 공백기는 어떻게 보냈을까. 작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차라리 그 시간을 즐기기로 마음 먹었다고 했다. B1A4의



멤버로서 작곡 능력도 겸비한 그다.

“음악을 너무 사랑해요.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마침 촬영도 끝났고 해서 좋은 음악으로 찾아 뵈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음악과 연기에 대한 열정은 50대 50이예요. 연기 하면서

도 음악을 계속 병행할 거예요.”

연기자로서 해 보고 싶은 역할을 물었다. 전쟁영화 등 다양한 장르, 사이코패스 같은 반전 캐릭터에 도전해 보고 싶다고 했다.

진영은 “전쟁영화를 해 보고 싶다.

역동적으로 싸우고 싶다. 주변에서 사이코패스 역할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다. 선배 보이는데 그 눈 안에 무엇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신다. 뒤통수 친다고 하는데 그런 반전 있는 인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기, ‘싱어게인’ 시즌 1에 이어 시즌2 MC도 맡아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JTBC ‘싱어게인 - 무명가수전’ 시즌 1에 이어 시즌2 MC석에 오른다.

11일 JTBC에 따르면, 이승기는 오

12월 방송

는 12월 방송되는 ‘싱어게인’ 시즌2의 사회를 다시 보게 됐다.

올해 초 종방한 ‘싱어게인’ 시즌1은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무명가수를 발굴하며 주목 받았다.

특히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 등 톱3를 비롯 출연자의 다수가 인기를 끌었다.

이승기는 음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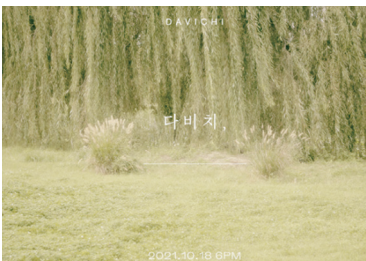
주는 공감 진행으로 호평 받았다.

이승기는 “‘싱어게인2’를 다시 함께 하게 돼 기쁘다. 이번엔 또 어떤 무명 가수분들이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감동을 줄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싱어게인2’는 ‘투유프로젝트-슈가맨’ 시리즈와 ‘싱어게인’ 시즌 1을 성공리에 이끈 윤현준 책임프로듀서(CP)가 기획했다.

예능 ‘독립만세’의 채성욱 PD가 연출을 맡았다.

다비치, 가을감성으로 컴백…오는 18일 발매



여성 듀오 다비치(이해리, 강민경)가 가을 감성을 안고 돌아온다.

소속사 웨이크원 엔터테인먼트에

약 6개월 만에 신곡

따르면 다비치는 오는 18일 오후 6시 신곡을 발매한다. 이와함께 공식 SNS를 통해 첫 번째 무드 포토를 게재하며 컴백을 공식화했다.

신곡은 지난 4월 발매한 ‘그냥 안아달란 말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공개된 이미지에는 초가을과 겨울 사이 어스름한 초록빛과 금색 빛을 품은 잔디와 버드나무가 가득 담겨있다. 따뜻한

하면서도 편안한 매력을 주는 이미지에는 ‘10월 18일 오후 6시’ 발매일이 적혀 있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 올리고 있다.

그동안 다비치는 tvN 드라마 ‘어느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OST ‘올 오브 마이 러브(All Of My Love)’, 바이브 데뷔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사진을 보다가’ 등의 음원으로 꾸준히 대중과 만나왔다.

뉴시스

‘갯파더’ 시청률 ↑ …장민호 ‘창고집 생활고’ 사연 심금 울려

가상 부자 생활 예능

연예인들의 가상 부자 생활을 그리 는 ‘갯파더’가 상승세를 탔다.

지난 9일 방송한 KBS2 예능 프로그램 ‘갯파더’에선 이순재와 하재, 김갑수와 장민호, 주현과 문세윤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방송된 2회는 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 5.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갯파더’는 지난 1회 수도권 기준 3.4%에서 2회 5.3%로 시청률이 약 2% 상승했다.

특히 ‘갯파더’ 최고의 1분은 주현과 문세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집으로 이동하는 장면으로 수도권 기준 8.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갑수와 장민호는 점심에 이어 저녁 식사 또한 함께하면서 정을 쌓아 갔다.

이들은 화가에애한 요리 시간을 보낸 뒤, 와인을 마시며 과거 이야기를 나눴다.

장민호는 이른 나이에 데뷔했지만 순탄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장민호는 아이돌 데뷔 이후 이내 해체 수순을 밟고 생활고를 겪었다. 특히 창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피부병을 앓았다는 장민호의 사연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장민호는 당시 친형과 누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며 “가족에게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김갑수는 장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친아버지 얘기를 말했다. 김갑수는 초등학생 4학년 시절 친아버지를 어린 뒤 영정사진으로만 그를 만났



다.

김갑수는 “아버지와 산 세월보다 제사를 지낸 게 더 길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들은 이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더욱 끈끈한 부자 관계를 형성했다.

주현과 문세윤의 사연 또한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현은 자신의 앨범을 보면서 과거 아들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현은 “너무 일찍 애들을 키우다

보니 아버지로서의 정을 모르고 살았다”며 “이빠하는 법을 몰랐다. 무뎡뎡한 아버지였다”고 전했다.

묵묵히 주현의 이야기를 들은 문세윤은 자신 또한 아버지와의 사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세윤은 개그맨으로 데뷔 직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문세윤은 인터뷰를 통해 “내가 준비되면 상대방은 안 돼 있고, 상대방이 준비되면 내가 자제가 안 돼 있다”고 전해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블랙핑크 ‘붐바야’도 스포티파이서 넘겼다…3억 스밍

통산 7번째

그룹 ‘블랙핑크(BLACKPINK)’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또 기록을 추가했다.

11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히트곡 ‘붐바야’가 지난 9일 스포티파이에서 3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킬 디스 러브’(5억),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5억), ‘뚜두뚜두(DDU-DU DDU-DU)’(4억), ‘아이스 크림’(3억), ‘마지막처럼’(3억), 제니 솔로곡 ‘솔로’(3억)에 이어 블랙핑크 통산 7번째 3억 스트리밍 곡이다.

‘붐바야’는 2016년 8월에 발표된 블랙핑크의 데뷔 싱글 앨범 ‘스퀘어 원’(SQUARE ONE)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다.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신나는 드럼 비트가 인상적인



곡이다.

블랙핑크는 스포티파이에서 꾸준한 스트리밍 증가 추이를 나타내며 글로벌 파급력을 증명했다.

앞서 언급된 곡들 외 ‘불장난’(2억), ‘Lovesick Girls’(2억), ‘휘파람’(2억) 등 총 18개 역대 스트리밍 음원을 보유 중이다.

여기에 최근 발매한 리사의 솔로

타이틀곡 ‘리사’ 역시 1억 스트리밍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이들의 기록 경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블랙핑크의 공식 스포티파이 계정 팔로워수는 2520만 명 이상을 기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679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1위다.

‘오늘무해’ 공효진·이천희·전혜진, 죽도 입성



탄소제로 프로젝트

‘20년 절친’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의 탄소제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오는 14일 오후 10시40분 첫 방송되는 KBS 2TV 환경 예능 ‘오늘부터 무해하게’는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이 에너지 자립섬 죽도에서 일주일 동안 펼치는 탄소제로 생활 도전기를 그린 다. 이에 앞서 ‘오늘 무해’ 측은 세 사람의 에너지 자립섬 죽도 입성을 담은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

터에서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은 ‘오늘 무해’라는 프로그램명에 걸맞게 힐링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이들의 모습에서 20년지기 절친 호흡이 느껴지는 가운데, 옆에 산더미처럼 짐이 쌓여 있어 순탄치 않을 도전을 예고했다. 그런가 하면, 공효진이 기획에 이름을 올린 것 또한 이목을 끈다. 공효진은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묵은 숙제로 친화 오빠, 혜진이와 함께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획에 참여했다”고 밝혔다.